

WCPFC 남방 날개다랑어 관리워크숍(1차) 참석 결과

□ 개요

- (일시/장소) '25.9.11(목)~9.12(금) 08:00~12:00(한국시간) / 화상회의
- (참석자)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미국, FFA, NGO 등 약 90명
- (회의목적) 올해 총회(12월)에서 남방 날개다랑어(SPA) 관리절차 보존 관리조치를 채택하기 위해 과학서비스 제공자인 SPC에서 작업한 SPA 관리절차 후보(CMP)들을 검토하고 관련 쟁점들*을 논의

- * 1) 관리절차 통제 방식을 어획량 또는 노력량으로 할 것인지
- 2) 관리절차 적용 범위 (남위 0~10도 해역 배제 여부)
- 3) 관리절차 미적용 해역(동부 태평양 해역 등)의 어획량 수준에 대한 가정

□ 주요내용

[1일차 [9.11]]

- (의제4) SPA 관리절차(MP)
 - 4개의 발표가 진행되었음: 1) 21차 과학위에서 SPA 관련 논의 결과(과학위 의장) 2) SPA 관리절차 분석 변경 사항(SPC) 3) SPA CMP 평가 결과(SPC) 4) SPA 관리절차 보존관리조치 초안(호주)
 - SPC는 관리절차 적용범위를 축소(남위 0~10도 해역 제외)시킨 작업 결과를 제시하였음
 - 일본은 관리절차가 적용되는 범위는 해당 어종이 회유하는 전 해역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것이 작년까지의 논의 결과임을 언급하였음. SPC가 제안하는 적용범위 축소에 관해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합의가 없었음을 제기하고 남위 0~10도 해역을 적용범위에서 배제해서는 안됨을 주장하였음. 중국도 이에 동의하였음

- * 일본은 영해와 군도수역은 보존관리조치 적용을 배제해 온 것이 WCPFC 관행이고 동부 태평양 해역(EPO)은 WCPFC 협약수역이 아니므로 당연히 배제됨을 언급하였음
- SPC는 동일한 해역에서 복수의 MP들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남위 0~10도에서는 SPA 어획량이 적음을 언급하였음
- 호주는 SPA CMP들에서는 어획량 통제 옵션과 노력량 통제 옵션이 모두 준비되어 있는바, 노력량 통제를 위해서는 동일한 해역에서 복수의 MP들의 충돌 방지가 필요함을 언급하였음
- FFA는 소도개도국들이 복수의 MP를 적용하여 관리하는 것에 부담이 있고 작업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남위 0~10도와 적도 이남 소도개도국들의 EEZ에 대해서도 SPA 관리절차를 배제하고 열대다랑어 조치만으로 규율되길 원한다고 언급하였음
- 일본은 북태평양에서 날개다랑어와 참다랑어의 경우 동일한 해역에서 복수의 MP를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적용범위 축소에 반대하였고 중국도 이에 동의하였음
- 미국은 어획량 통제가 보다 직접적인 통제 방식이므로 어획량 통제 방식을 지지하였고 올해 관리절차를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남위 0~10도를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음
- 일본은 현재 조치(2015-02)에서는 기준연도를 04년, 05년으로 하고 있고 기준연도는 향후 할당 논의에 영향이 있으므로 관리절차에서도 기준연도를 동일하게 04년, 05년으로 하는 것이 좋음을 언급하였음
- SPC는 CMP들에서 기준연도를 20~22년으로 한 이유는 과거 연도들에 비해 더 좋은 데이터들이 제공됨에 있었고 관리절차의 목표는 잠정 목표기준점(iTRP)의 도달이고 어떤 기준연도를 사용하더라도 관리절차가 목표에 도달하도록 구동되는 것은 동일함을 언급하였음. 호주는 기준연도는 총어획량 또는 총노력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할당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특정 기준연도가 중요하지 않음을 언급하

였음

- 일본은 EPO 어획량 수준에 대한 가정에 대해, CMP들에서는 2014~2023년 수준으로 하고 있으나 코로나 기간에 어획량 감소가 있었으나 최근 3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IATTC에서 SPA 어획한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EPO 어획량을 더 높은 수준으로 가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음
- 미국은 EPO 어획량을 역사적인 수준보다 10% 높은 27,000톤으로 가정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FFA는 2014~2023년 수준이 적절한 가정이고 IATTC에서 적정한 어획한도를 수립하도록 IATTC와 협력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음

[2일차 [9.12]]

○ (의제4) SPA 관리절차(MP)

- 어제 SPC에서 발표한 작업 결과에 대해 SPC에 추가적으로 요청할 작업들의 우선순위를 논의하였음
- 남위 10도 이남 토켈라우와 투발루 EEZ 내 어획을 MP에서 배제하는 옵션을 7개 CMP에 모두 작업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음
- 일본은 자국 남방 참다랑어를 목표로 하는 선박들에 의한 SPA 어획량이 매년 2~3천톤 되고 있는바, 이는 혼획이고 트롤 어업도 어획량이 유사하므로, 미국이 제안한 트롤 어업 적용 배제와 같이 자국의 이 어업을 MP 적용에서 배제하는 옵션을 작업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FFA는 소도개도국인 토켈라우와 투발루가 복수의 MP를 동일한 해역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담이 있으므로 SPA MP를 적용 배제해야 하나, 다른 어업들이 이런 저런 사유로 배제되는 것은 안됨을 언급하였음. 토켈라우와 투발루 EEZ는 눈다랑어 MP에 의해 관리되므로

관리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음

- 미국은 SPC 작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켈라우와 투발루 EEZ 내 SPA MP 적용을 배제하는 옵션을 지지할 수 있고 어제 미국이 제안한 EPO 어획량 증가 옵션도 보고서에 기록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작업 요청을 철회하였음
- SPC는 작업 부담이 있으므로 모든 CMP들에 대한 견고성(robustness) 테스트를 총회 전까지 수행하기는 어렵고, 총회 전까지 1~2개 CMP로 압축되면 작업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종 채택된 MP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견고성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고, 채택된 MP가 사후 테스트에서 실패하면 관리자들이 MP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일본은 MP에서 사용되는 기준연도와 관련하여, 어제 SPC에서 말한 것과 같이 MP 결과를 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 CMM 내 기준연도로 작업하는 것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고 추후 할당 논의를 할 때 논의할 수 있을 것임을 언급하였음. SPC는 MP를 이행하는 보존관리조치에서 기준연도를 현재 보존관리조치 기준연도로 명시하고자 한다면 HCR 내 기준연도들도 모두 변경해야 할 것임을 언급하고 이 작업을 마지막 단계에 가서 할 것을 요청하면 곤란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음

○ (의제5) SPA MP 이행을 위한 보존관리조치

- 남태평양그룹(SPG)은 현재는 준비가 되지 않았으나 총회에 제안서를 제출할 것임을 언급하였음
- FFA는 SPA도 공해와 연안국 EEZ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zone based 접근을 해야 함을 언급하였음. MP 채택 후 SPA 전체 TAC가 정해지면 공해와 연안국 EEZ 각각에 대한 할당을 정하는 2단계 접근을 해야

함을 주장하였음

- 미국은 자국도 남태평양에서 상당한 EEZ를 갖고 있는바, 올해 총회에서 할당 논의를 기대하겠다고 언급하였음
- 일본은 올해 총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이 SPA 할당 사안에 대해 총회 전 FFA 회원들과 협의하기를 원함을 언급하였음

○ (의제6) 혼합(mixed) 어업 이슈 및 남방 날개다랑어와 눈다랑어 MP 간 양립가능성

- FFA는 남방 연승(southern longline)과 열대 연승(tropical longline)으로 구분하더라도 각 MP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혼합 어업 이슈가 올해 SPA MP 채택에 어려움을 야기하지 않음을 언급하였음
- 일본은 이 작업반 회의는 SPA를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다른 어종들에 대해서 논의할 입장이 아니라고 하였음. 총회에서 어떠한 논의나 합의도 없이 SPC에서 제안한 혼합 어업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는 더 많은 배경 설명과 정보가 제공된 후에 논의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음

○ (의제7) 작업계획

- 회원들 간 다자, 양자 협의를 진행하고 11.5(수)에 추가 화상회의(하루, 4시간)를 개최하기로 하였음